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민·관·군
자연 정화활동 실시**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요즘 지난 겨울 혹한기 대규모 훈련을 실시한 부대가 훈련으로 사용한 지역에 대한 자연 정화 활동을 위해 다시 출동, 환경보전 활동을 펼치고 있어 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지난 2월 초 혹한기 훈련기간 동안 대규모 병력과 헬기가 훈련장으로 활용한 남한강 일대 수변 지역에 대해 훈련 종료와 동시에 자연정화 활동을 위해 부대 예하 2항공여단 소속 301항공대대 장병 200여명과 CH-47 대형 헬기 2대를 투입하여 자연 정화 활동을 벌여 군작전을 방불케 했다.

부대는 훈련전 미리 인근 주민 및 관공서와 사전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훈련장 인근 자연 훼손 예방 차원에서 토양오염 대비용 오일펜스 및

흡착포를 미리 준비하고 쓰레기 분리 수거용 마대 100포를 준비하는 등 철저히 준비된 상태에서 훈련에 임했고, 훈련기간 중에는 기회교육 때마다 장병들에게 환경보전에 대한 정신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연보호 활동에 최선을 다했다.

이날 대형 헬기 2대와 200여명의 장병들이 실시한 자연 정화 활동은 지난해에 이어 2회째 실시된 환경친화활동으로 단순히 훈련장의 오물수거에만 그치지 않고, 남한강 수변지역내의 자연훼손지역 복구, 식수원 오염 최소화 및 불법 밀렵으로 위협받는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밀렵도구의 수거 등 후순에게 물려줄 귀중한 자연환경을 복구하는 등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연보호 활동을 전개했다.

UNEP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개최

지난 케냐 나이로비에서 개최된 유

엔환경계획(UNEP) 제22차 집행이사회에서 2004년 제8차 특별집행이사회 개최국가로 한국이 최종 결정됐다.

이번 결정은 우리정부가 2002년 제7차 특별집행이사회에서 유치를 사를 공식 표명한 이래,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WSSD) 등 각종 국제무대에서 유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얻은 성과로 평가된다. 동 회의는 2004. 3. 29(월)~3. 31(수) 3일간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전세계 130여개국 각료급 대표, 주요 국제기구와 국제 NGO 대표 등 700여명 이상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지구환경장관포럼과 겸하여 개최된다.

국제환경문제의 핵심의제를 논의하는 유엔내 환경관련 최고회의를 아시아지역에서는 최초로 한국이 개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동회의에 참석하는 각국 정부대표를 포함한 전세계 환경전문가들에게 우리나라의 환경보전 노력 및 환경산업·기술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전시, 산업단지 오염배출업소
그린 e-메일 실시**

대전시는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에 대한 환경지식 및 정보 인프라 구축의 하나로 산업단지 배출업소에 대해 e-메일을 통해 환경정보를 제공



하는 그린 e-메일제(Green e-mail)를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 제도는 배출업소에서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각종 환경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해 배출업소 환경 관리에 필요한 환경정보를 매월 1일과 15일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정보 제공 업소는 규모가 큰 배출업소 79개소이며 주내용은 환경 정책, 환경관련법 제·개정 내용, 환경관리 관련 질의 및 회신, 환경 신기술 소개 등이다.

친환경제품 생산, 소비 촉진 워크숍

대한상공회의소는 지난 2월 10일 남대문로 소재 상의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환경마크협회, 전국환경친화기업협의회와 공동으로 '국내 기업의 친환경제품 생산·소비촉진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풀무원, 환경광고대상 수상

기업이 환경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제정된 제1회 우수환경광고상에서 풀무원의 "생명을 하늘처럼 시리즈"가 대상을 차지했다. 또 LG전자의 "자연과 디지털 시리즈"가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환경광고상은 생활환경운동여성단체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광고주협회가 후원해 환경친화적 광고를 시상함으로써 대중들에

게 친근한 환경캠페인을 전개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설립됐다.

마·창원환경갯벌보전 해수부장관 표창

경남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이인식, 조현순)이 제8회 세계 습지의 날을 맞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표창을 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마산·창원환경련은 지난해 마산 봉암갯벌 및 습지를 생태 학습장으로 조성하는데 앞장섰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개펄과 습지 보호운동을 지속적으로 펼치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상을 받았다.

환경관리공단, 다이옥신 첫 국제시험기관 인정

환경부산하 환경관리공단(이사장 이석현)이 국내 최초로 토양, 대기, 수질, 혈액시료 등 모든 분야의 다이옥신 분석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았다.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증제도는 국제시험소인정협력기구(ILAC) 업무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 내 한국시험소인정기구(KOLAS)가 분석능력에 대한 공신력을 인정해 주는 제도로, 분석 데이터는 국제적으로 신뢰받게 된다.

환경관리공단은 최근 KOLAS의 시

험능력 분석, 품질관리 및 보증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작년 12월 30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관리공단은 앞으로 5년간 환경호르몬 물질인 다이옥신 분석의 국제공신력을 확보하게 됐다.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간담회 개최

지난 1월 27일 프레스센터에서 환경부장관, 서울특별시장(이명박), 인천광역시장(안상수), 경기도지사(손학규), 강원도지사(김진선), 충청북도지사(이원종) 등이 참여하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팔당특별종합대책 추진성과의 점검을 포함한 한강수계관리대책 추진현황에 대한 의견교환이 있었다.

제주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연구발표회

제주지역환경기술센터의 2002년도 연구개발사업 최종 평가 발표회가 최근 제주대학교 교수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발표회에는 ▲육상해산어양식장 배출수의 처리 기술 개발 및 효율적 관리방안 ▲제주도 수자원의 환경호르몬 감시체계 구축 ▲제주도 지하수의 오염저감 기술에 관한

연구 ▲제주도 지하수와 용출수의 오염기원 조사 및 판별기법 개발 등의 주제발표가 마련됐다.

**제9차 환경보전시범학교
최종보고회 개최**

환경부는 지난 2월 17일 환경부장관, 시범학교 교장 및 운영교사, 시·도교육청 장학관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차 환경보전시범학교 최종 보고회를 정부과천청사 3·4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지난 2년간 운영한 환경보전시범학교의 성과 및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전국의 일선학교에 확산시키고 향후 제10차 환경보전시범학교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제9차 시범학교 총 26개교 중 효동초등병설유치원(광주), 장동초등학교(대전), 하단중학교(부산),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제주) 등 4개교가 우수시범학교로 선정되어 환경부장관 표창장과 함께 부상으로 학교당 100만원을 지급 받았으며, 우수사례 발표가 있었다.

**전남환경기술개발센터,
환경부 평가서 대상**

여수대학교에 설립된 전남지역환

경기술개발센터가 환경부 평가에서 2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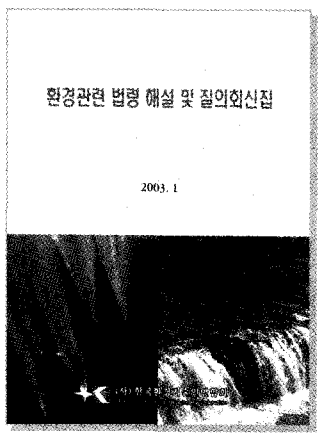
지난 2월 15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3일 동안 환경부 평가단이 전국 16개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상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또 최우수 센터에는 경기, 경남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가 선정됐고 우수 센터는 울산, 강원, 충남 센터가 각각 선정됐다.

대상을 차지한 전남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는 1억원의 국고지원금을 받게 된다.



시간안내



환경관련 법령 해설 및 질의회신집

- I. 대기환경보전법령 해설 및 질의회신
 - II. 수질환경보전법령 해설 및 질의회신
 - III.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련시설 법령해설 및 질의회신
 - IV. 폐기물관리법령 해설
 - V. 유해화학물질관리법 해설 및 질의회신
- <부록>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규정

■ 발행처 : 한국환경기술인연합회
 ■ 판형 : 4×6배판 327P
 ■ 구입문의 : (02) 852-2291